



사노피-서울아산병원-ANRT, 국내 최초로 임베디드 모델의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 선봬

- 사노피 글로벌 포스닥, 한국 포함 아태 지역 최초로 선보이는 신약 공동 개발 연구 형태
- 촉망 받는 한국인 박사 연구자 2인에 혁신적인 간암 신규 타겟 발굴 연구 주도 기회 제공

2015년 1월 20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의 제약사업부문인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 서울아산병원 선도형암연구사업단(사업단장 이정신), 대전에 본사를 둔 바이오벤처 (주)ANRT(최고기술책임자 박범찬, 이하 “ANRT”)는 국내에서 혁신적인 간암 치료제의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촉망받는 한국인 박사 연구자 두 명에게 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노피 R&D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최초로 본사소속의 ‘글로벌 박사 후 과정’ (Post-Doctoral Program, 이하 “글로벌 포스닥”) 포지션을 한국에 유치, 2명의 한국인 박사를 발탁했다. 이 두 연구원은 사노피 R&D 소속으로 서울아산병원 선도형암연구사업단과 대전에 위치한 ANRT 연구소에서 각각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기술과 항체 기반의 새로운 간암 치료 타겟 발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사노피 R&D의 이광희 박사는 “글로벌 포스닥을 매개로 한 이번 공동연구는 ‘임베디드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 (Embedded Open Innovation Model, “현장형 개방 혁신 모델”)의 국내 첫 시도로, 사노피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범위가 항암 면역치료제의 타겟 발굴 연구까지 확장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사노피는 이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에 주력해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기술 교류에서부터 공동 연구인력 육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선도형암연구사업단의 이정신 단장은 “지난 2011년부터 사노피와 진행해온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서울아산병원의 방대한 임상시료와 익명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간암 관련 신약 타겟 및 바이오마커 발굴에 속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사업단에서 구축한 중개연구기반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물의 임상적 유효성을 조기에 검증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전에 본사를 둔 바이오벤처 ANRT의 박범찬 최고기술책임자는 “학계와 글로벌 기업, 바이오벤처가 ‘혁신적인 간암 치료제 개발’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각자 경쟁 우위가 있는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축망 받는 국내 인재들의 활동과 성과를 공동 관리하며 양사의 항체 타겟 발굴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노피는 서울아산병원과 지난 2011년 포괄적인 신약 임상연구 협력을 구축, 작년 5월 간암 환자의 임상 데이터 공유 및 유전체 데이터의 공동 생산 및 연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ANRT와는 지난 2012년 항체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을 위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항체 치료제 개발 연구에 협력을 진행해 왔다.

###

사노피(Sanofi) 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 그룹은 인간 삶의 개선을 위한 치료 솔루션을 연구, 개발 및 제공하는 세계 선두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파리 (EURONEXT: SAN) 및 뉴욕 (NYSE: SNY)에 상장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전문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세노비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백신(사노피 파스퇴르), 희귀질환치료제 (젠자임 코리아), 동물의약품 (메리알 코리아)을 통해 예방에서 치료까지, 전문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까지, 사람에서 동물까지, 환자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선도형암연구사업단에 대하여

서울아산병원은 하루 외래 진료 환자 1만여명, 연간 5만 9천여 건의 고난이도 수술을 하면서 쌓아온 임상 진료 노하우를 바이오 연구와 접목시켜 첨단 치료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한국형 연구중심병원의 완성을 목표로 국내 의생명공학 연구와 바이오 산업을 이끌며 세계 최고의 연구중심병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 출범하여 서울아산병원에서 대표적인 연구사업단으로 자리매김한 선도형암연구사업단은 “최적의 맞춤 암치료기술 개발”의 비전을 위해 맞춤 항암제 개발에 필요한 첨단의 플랫폼 기술을 구축하고 초기단계 연구성과물의 임상진입 가속화라는 본 사업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한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주) ANRT 에 대하여

2007년에 설립된 (주)ANRT는 세계적 수준의 인간항체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항체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ANRT가 보유하고 있는 수용체(receptor) 라이브러리는 신약 개발의 핵심인 새로운 질환 타겟을 발굴할 수 있는 독창적인 기반 기술로 앞으로 질환 타겟 발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베디드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 (Embedded Open Innovation Model) 에 대하여

임베디드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 (Embedded Open Innovation Model, “현장형 개방 혁신 모델”)은 오픈 이노베이션의 협력 유형 중 하나로, 공동 프로젝트에서 보다 발전하여 방문 학자 등 인적 교류를 나누어 네트워크 확보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 형태를 말한다.